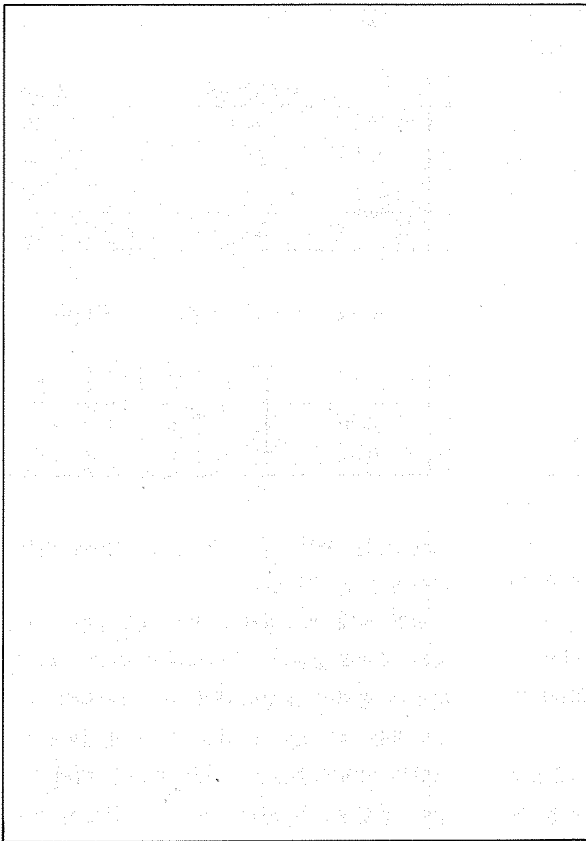


옥스포드에서 韓國을 빛낸 사람들



權秉順

(코리아 비즈니스 어소시에츠 대표)

지난해 7월 英國의 자랑이며 유서깊은 대학인 옥스포드의 석유대학원(The College of Petroleum Studies)의 초청을 받아 2주 동안 英國을 다녀온 적이 있다.

나는 옥스포드에서 보낸 1주일 동안 한국인으로써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것은 韓國의 석유사업 및 관련행정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뛰어난 능력과 불굴의 노력의 덕택이었다.

나는 지난 1985년부터 옥스포드 석유 대학원의 한국 대리인 직책을 지극히 우연한 인연으로 맡게 되었다.

지난 10년 가까이 주한 英國 대사관 상무관들과 자주 만나고 골프를 치면서 英國의 대한무역, 특히 수출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자문이라도 조언을 해 준 덕에 이들과 각별한 친분을 가질 수가 있었다.

1984년 겨울 어느날 英國 상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신은 現代에서 석유를 포함한 자원 본부장도 했고, 인력개발원장도 했는데 옥스포드 석유 대학원 일을 좀 도와줄수 없겠는가』하는 제의였다.

마침 동대학원의 이사가 출장중이어서 그분을 소개 받아 이 대학원 과정이 아주 훌륭함을 알게 되

● 이몽든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韓國의 석유인(oilmen)들이 보석처럼 날이 갈수록 빛난다니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

었다.

나는 한국의 정유공장과 석유사업 그리고 동력자원 행정분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고 『한국에는 귀대학원의 활용참여가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분은 『대단히 좋은 생각인것 같은데, 英國에 돌아가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헤어졌다.

한달 남짓 뒤 나는 대리인 지명 통보를 받고 6개 석유협회 회원사를 비롯하여 동자부와 관련기관 및 석유 가스회사등에 열심히 자료를 보내고 접촉했다. 그 결과 87년말까지 3년동안 33명의 석유관련 임직원과 동자부 간부가 이 대학원 교육에 참여 했으며, 금년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학원은 한국인 참가자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70여개국의 참가자들 가운데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것이다.

처음 도착해서는 영어 회화가 서툴고 장거리 비행과 시차에 시달려 활기가 없는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석처럼 빛나는 한국사람들』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들을 놀라게 한것은

참가자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교육참가기간이 길어지며 참가자의 직업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한국 석유사업의 발전적인 장래를 말해주는 것으로 그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참가 교육과정도 하류부문에서 상류부문으로 가다가 이제는 양쪽이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바람직한 현상들이 마침 대리인을 임명한 다음 부터 눈에 띄게 일어나니 대리인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전에 없이 필자를 초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필자는 분명히 말해 주었다.

『대리인이 잘해서가 아니고 韓國의 석유업계 및 행정분야에 인제가

많고, 국가적으로 여유가 생겨 발전적인 방향으로 눈을 떴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선과 관련하여 어쩔수 없이 받아야 했던 미국 교육 및 환경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그 순간에 맞추어 등장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사실은 이 대학원의 교육과정이 훌륭하고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이라는 교육환경이 좋으며, 노련한 실무 위주의 강사진이 많기 때문이다.

또 美國에 비하여 친절하고 교육과 언어 및 주변 생활에 교양있는 품위가 넘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아부하는 것 같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않았다.

이몽든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韓國의 석유인(Oilmen)들이 보석처럼 날이 갈수록 빛난다니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이분들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 것처럼 치솟기만하던 국내 석유값을 원만하게 끌어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마리브 유전의 성공과 동해안의 가스탐사 성공 및 순조로운 석유화학 공업의 발전은 옥스포드에서 한국의 석유사업을 더욱 빛낼 것으로 확신하여 기대해 본다. ☐